코로나에 관심 '뚝'…5無 크리스마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레스토랑 예약 80%가 취소 차분하고 조용한 성탄 예고

1無 모임·파티·외식 등 사라져
2無 성탄 예배·미사 비대면으로
3無 캐럴 안 들리고 네온 꺼지고
4無 나눔·기부도 예년만 못해
5無 눈 없는 성탄…스키장도 폐쇄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기가 쉽지 않다. 간간히 보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에다, 흥겨운 캐럴도 잘 들리지 않는다. 천주·기독교의 화려한 성탄 미사도 사라졌고 가족·친구들끼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밤새 북적이던 유흥가 불빛도 9시 이후로는 꺼져 볼 수 없게 됐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 선물을 전달했던 '산타'도 자취를 감췄고 모이지 않다보니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열기도 사그라들었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고요하고 삭막하면서 다소 썰렁한 '5무'(無) 크리스마스다.

◇모임·파티없는 '조용한' 크리스마스=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도 시행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강제 조치를 적용해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모임을 미루라는 취지인 만큼 패밀리 레스토랑과 유명 음식점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올해 개점한 광주시 서구 광천동 A스테이크 전문점은 예약율이 4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100%를 육박했던 예약율을 기록했던 충장로 지점은 올해 20~30% 수준에도 못 미친다.

레스토랑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크리스마스 몇 주 전부터 예약이 마감됐는데, 올해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후 80% 가까운 예약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여고 동창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계획했던 정유나(30)씨도 "회사에 다니거나 공무원 친구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모이는 것을 꺼리다보니 올해 크리스마스 파티는 취소했다"고 말했다.

◇화려한 네온·크리스마스 트리, 캐럴 사라진 도심=거리에서 쉼 없이 흘러나왔던 캐럴 듣기도 어려워졌다. 예전엔 12월 이맘때면 충장로 상점마다 들렸던 캐럴은 올해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불을 켜놓은 상점도 많지 않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를 돌아다니는 손님이 없다보니 굳이 캐럴을 틀려고도, 트리를 꾸미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손님 발길도 줄었는데 강제 영업제한까지 걸리다보니 '장사 해도 남는 게 없다'며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로 텅 빈 상가와 '임대 문의' 현수막으로 도심 분위기도 어둡다.

법원을 찾는 자영업자 등의 '파산' 신청도 부쩍 늘어났다. 광주지법의 경우 지난달까지 접수된 법인파산 건수는 34건. 전년도 같은 기간(15건)에 견줘 2.26배나 늘었다. 화려한 게 아닌, 어둡고 우울한 크리스마스다.

◇비대면으로 열리는 '소박한' 성탄 미사=천주교와 개신교의 최대 명절인 성탄 미사와 예배는 비대면으로 치러진다. 사상 처음이다. 천주교는 212개 성당에서 각각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으로 예수의 탄생 미사를 치른다.

천주교광주대교구는 평화방송을 통해 24일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25일 낮 미사를 온라인으로 내보낸다.

개신교의 경우 광주·전남 교회 5580곳이 교회가 아닌, 온라인으로 비대면 성탄 예배를 진행한다.

교회도 크리스마스에 열던 성탄축하발표회를 취소했고 크리스마스 당일 어린이부터 노인신도까지 모두 모이는 '한가족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

◇모금도, 나눔도 썰렁한 크리스마스=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않아서일까. 나눔도, 모금도 예년만 못하다.

2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회에 따르면 희망 나눔캠페인 목표 금액은 22일 기준 11억 8900만원으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28.2도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억 1900만원에 비해 1억 3000만원 적다.

올해는 목표액도 지난해(55억 200만원)보다 23.5%(12억 9200만원)나 낮춘 42억 10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도, 이정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개인 기부도 줄었다.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던 광주재능기부센터의 '몰래산타'는 올해 꾸려지지도 못했다. 만나는 데 어려움이 있다보니 아예 산타 모집도 하지 않았다.

◇눈도 없는 크리스마스=올해 크리스마스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4일 광주·전남지역은 기압골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성탄절인 25일에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다"면서 "눈이 올 확률은 낮다"고 예보했다.

24일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낮 최고기온은 8~12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25일은 최저기온 영하 3~2도, 최고기온 6~8도가 예상된다.

눈을 찾아 스키장, 눈썰매장으로 갈 수도 없게 됐다. 정부는 방역 지침으로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폐쇄했다.

크리스마스에 스키장 방문을 계획했던 오종균(29)씨는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무주리조트를 예약했는데, 스키장이 폐쇄됐다"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라진 상황에서 스키장을 찾아 겨울분위기를 만끽하려했는데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유치원·학교 28~31일 나흘간 원격수업 전환

코로나19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각급 학교가 오는 28일부터 나흘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전체 유·초·중·고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방역 강화 특별 대책에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다. 최근 지역감염이 폭넓게 확산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유치원과 초등·특수 학교의 긴급 돌봄은 정상 운영된다. 특수 학교의 경우 전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1대1 또는 1대2 대면 교육도 병행할 수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 당국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수업 결손을 최대한 줄여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운동장서 수능 성적표 배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23일, 광주 광덕고등학교 운동장에서 3학년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성적을 확인하고 있다. 광덕고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자 야외에서 수능 성적표를 배부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홍진영 석사 논문 최종 표절 판정

가수 홍진영의 논문이 표절로 판정이 났다.

23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대학원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홍진영 석사 논문을 표절로 최종 판정했다"며 "이에 따라 학위 취소를 위한 행정조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또 "2011년부터 논문지도 교수에게 부여했던 논문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지도 및 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연구 윤리 관리 시스템도 더욱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홍진영의 조선대 석사와 박사 학위는 조만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진영의 학위 논란은 조선대 무역학과 석사학위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가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이 74%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홍진영은 최근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면서 SBS와 MBC 등 여러 매체의 예능 활동을 중도 하차하거나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냉장고에 자식 시신 방치 엄마 기소

숨진 자식을 2년 동안 자신의 집 냉장고에 방치한 40대 어머니 〈광주일보 12월 1일 7면·2일 6면〉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태어난 지 두 달 된 신생아를 방치,사망케 하고 시신을 2년간 냉동실에 유기한 어머니 A(41)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또 숨진 아이 외 자녀 2명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해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생업에 종사하다 지난 2018년 8월 남녀 쌍둥이를 출생했으며 10월께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숨진 뒤 2년여 동안 집안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여수시 공무원이 5t 상당의 집안 쓰레기를 청소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아이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여수경찰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동 전문기관 신고를 받고 A씨 집을 수색하다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와 자녀,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방임 여부 등을 파악하고 아이를 냉장고에 보관한 경위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한편, 검찰은 이들 남매의 복지를 위해 출생신고 및 친권 상실 청구를 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공공운수노조, 호남문화재연구원 상대 단체교섭 거부 손배소 패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가 호남문화재연구원을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가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윤명화 판사는 공공운수노조와 조합원 등이 재단법인 호남문화재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재단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재단측 거부로 결렬된 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도 합의를 하지 못하는 등 진척이 없는데 따라 재단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했고 잠정합의안에 따른 단체협약을 합리적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재단측이 잠정합의안을 파기한 것은 재단의 경영·인사권에 대한 조합의 참여 여부나 범위 등이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한 차례 파기한 게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위법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단측이 잠정합의안대로 협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잠정합의안 파기를 단체협약의 서면화를 거절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조합과 재단 사이 단체교섭이 계속 결렬된 이유는 단체교섭에 관한 재단측 태도보다 단체협약안 내용에 대한 극심한 의견 차이"라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통학버스, 화물차 추돌 광주 고교생 6명 다쳐

광주에서 고교생 통학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학생 6명이 다쳤다.

23일 낮 12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진곡동 도로를 달리던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를 타고 하굣길에 오른 고교생 17명 가운데 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학버스가 도로 가장자리에 멈춰 서 있던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0타경 10563	1	광산구 비아로185, 102동 7층 709호 [비아동,하남지구호반아파트] 59.88㎡	아파트	129,000,000 129,000,000	
2020타경 68999	1	서구 상무누리로33, 102동 9층 904호 [치평동,갤러리303] 152.23㎡	아파트	715,000,000 715,000,000	관리비미납됨[390,000원,2020.7.20.기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0타경 67637	1	담양군 무정면 강정자길 23 72.38㎡ 제시외 화장실 5.5㎡	단독주택	74,360,500 74,360,5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화장실5.5㎡]포함]
		담양군 무정면 동강리 333 274㎡	대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9747	1	동구 선교동 472-2 404㎡	답	444,400,000 444,400,000	현황주거나지
2020타경 11023	1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572-4 728㎡[현황답]	전	19,114,200 19,114,200	일괄매각.맹지,목록1,2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572-22 585.3㎡	전		
2020타경 69961	2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925-3 298㎡	임야	14,900,000 14,900,000	
2020타경 70718	1	나주시 산포면 등수리 1041-6 1025㎡	답	73,800,000 73,8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맹지
2020타경 71179	1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30-7 78㎡	임야	387,626,000 387,626,000	일괄매각.목록3,4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1,2현황전
		동소 31-2 224㎡[매각대상아닌타인건물일부소재하고측량요]	임야		
		동소 30-6 207㎡	전		
		동소 32 1283㎡	전		
2020타경 72011	1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산154 1996㎡[이연화,이규리각지분2/7전부]	임야	9,435,222 9,435,222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동소 산155-13 312㎡[이연화,이규리각지분2/7전부]	임야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0타경 10051	1	나주시 그린로379, 1동 2층 202호 [빛가람동,광주전남혁신도시포레루체오피스텔] 183.981㎡	근린시설	540,000,000 540,000,000	
[자동차,중기]					
2020타경 72455	1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도산동 송도로 198-3[도산동] 등록번호:95주9093 차명:포터II 연식:2016	자동차	8,000,000 8,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풍영정길65-15㈜대명씨앤피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1. 1. 8. [금]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1. 1. 15. [금]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잠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성관